

새해의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장 이 광 목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보건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께 우선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세상에 태어난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천한 탓도 있겠으나 확고한 기반이 닦여지지 못하여 계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학술적 또는 산업위생사업활동에 뚜렷한 뒷받침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더라도 정기 총회도 개최가 늦어졌었고 1년에 2회 개최하고자 했던 학술발표대회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을학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 회장으로서 여러 회원과 우리학회를 믿고 믿어주시는 여러분께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학회 회원은 380여명으로서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많은 인력이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속이거나 산업의학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대학과정에 관련 학과가 설립되어 왔고 대학원과정에 산업위생학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구활동

이 활발하여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이 미진했던점에 대해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해에 학회 활동으로서는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 이외에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정도관리사업에 학문적인 전문단체로서 참여하여 금속과 유기용제분석에 관한 정도관리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관리사업의 일환인 각 측정기관의 분석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문제가 거론된 적도 있었으나 교육계획상 시간이 촉박하여 신년사업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련부처와의 협력문제(주로 학술적인 질의에 관한 회신)도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학술잡지와 책자가 각각 1회 발간되었음은 여러 회원들께서도 아시는 일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지만 어느정도 이행이 될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구상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학술단체로서의 충실하고 내실있는 학술발표회 개최 등
산업위생학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활동을 전개할 것”**

1) 우선 학술단체로서의 충실하고 내실있는 학술발표회의 개최

각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2) 회원의 확보와 회원관리

순수한 산업위생분야 이외에 위생공학분야, 산업의학분야와 산업안전분야 연구자의 회원가입을 적극 권하여 작업환경 전반에 관한 학술단체로서 개방한다. 현재도 회원으로 가입된 산업의학 전공회원이 있기는 하나 산업위생에 관심이 있는 더 많은 산업의의 참여가 있어야 산업위생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의학과 산업위생학은 별도로 떨어져 별개의 학문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3) 정책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난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이를 활성화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교육 : 특히 산업위생과 관련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대학과 대학원별로 그 내용과 수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위생기사 및 기술사자격시험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여 뚜렷한 목표하에 인력양성을 꾀하고자 한다.

- 허용기준 : 산업장의 유해물 허용기준에 관한 심의와 권장안을 제안설명과 함께 발표하여 이 기준이 갖고 있는 뜻과 적용상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 쉬운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 장학 :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재 산업의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노동부의 장학제도를 산업위생연구자들에게도 개방하도록 건의 협의하고자 한다.
- 작업환경측정법 : 유해물의 포집방법으로부터 분석방법까지 다방면으로 분석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용하고 있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학회의 권장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부수되는 교육

에도 연구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참여한다. 지난해에 제 1회 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은 더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으나 보수 교육의 성격으로 간담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상호간의 어려운 점을 토의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된다. 물론 구체적인 실습을 원하는 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아래 강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5) 연구비를 확보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에 참여기회를 주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년의 계획으로는 작업장의 유해물의 허용기준에 관한 연구(가제목)가 계획되어 있으며 각대학에 분야별로 분담연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6) 산업위생에 관한 홍보책자(newsletter)를 발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업위생분야가 독립된 분야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산업보건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산업위생학은 산업보건분야의 한 보조분야처럼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작업환경측정이나 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실은 작업환경측정법과 작업환경의 유해물 허용기준을 정하고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작업환경개선방법을 연구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을 연구 실천하는 분야로서 실질적인 직업병 예방에 가장 가깝게 서있는 분야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데에는 물론 산업위생전문가들의 자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 홍보를 통하여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학회의 계획을 수행하는데에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지만 이는 회원들의 협조없이는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회원들께서는 솔선해서 참여하고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에서 우리 학회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우리가 이에 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위생학이 발달하고 이것이 곧 우리 국민과 근로자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